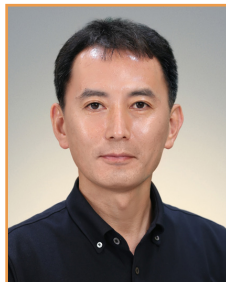


# ‘계란 살충제’ 사태를 지켜보며…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과 위생’ 잡을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능훈 교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계란 살충제’ 사태가 발생하지 약 20일이 지났습니다(2017년 9월 10일 기준). 각종 언론 매체에서 열흘이 넘도록 수도 없이 다루었던 큰 사회적 이슈였고,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나서서 향후 축산물의 안전을 온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의 관련 부처들에 주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처음 나온 후 약 3주가 지난 지금 그 여파로 계란의 소비가 부진하여 30개들이 한 판의 계란값이 대형마트에서 5천 원 대로 떨어졌다는 소식도 있고, 지금과 같은 소비부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수의과대학에서 축산물위생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치는 한 전문인으로서, 이번 ‘계란 살충제’ 사태를 방송과 신문을 통해 계속 접하고 나름 분석하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으실 대부분의 독자들도 직·간접적으로 축산이나 수의, 혹은 축산식품과 관련된 분들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느낌도 제 느낌과 그리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 산란계 사육 농가에서의 살충제 사용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가축사육단계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시정했어야 할 문제였지만, 지금처럼 많은 소비자들이 국내 산란계 농가를 불신하고, 심지어는 계란을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식품으로 인식할 정도로 문제의 대상이었는데는 의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식품의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살충제의 잔류가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이번처럼 소비자들로부터 계란이나 닭을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산란계산업 자체가 위축될 정도로의 중대 사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불확실한 자료들을 근거로 한 정부의 일부 발표 내용과 그에 대한 각종 언론들의 연속되는 질타가, 밝혀진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의 내용에 견주어 소비자들을 지나치게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0여 일이 지난 지금 계란의 안전성 관련 소식은 조용하기만 합니다만,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은 새로운 개선을 위한 준비의 시작점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기에 본 지면에 짧게나마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부의 생각이나 주장은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생각하신 바와 그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견해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것과 많이 다르거나 또는 정반대일 수도 있을 것임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합니다.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닭의 집단적 사육, 즉 계란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양계업의 출발과 그 역사를 같이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닭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면, 사육방법이나 계사의 구조 혹은 기타 환경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나면 닭 이(와구모)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처음엔 외부로부터 소수의 닭 이가 집단 내로 유입되는 것이 원인이 되겠지요. 처음부터 닭 사육환경과 닭 개체군 전체에서 100% 완벽하게 이를 제거한 후 사육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많은 수의 닭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면서 이의 감염을 100% 차단하거나 감염된 이 전체를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일단, 소수의 이라도 집단 내로 들어온 후 번식하기에 좋은 조건 쪽으로 사육환경이 바뀌게 되면 이는 자연적으로 폭발적인 증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계사 내의 높은 온도와 습도, 열악한 환기시설 및 높은 사육밀도 등이 닭 이가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조건들이 되겠지요.

따라서 국내 산란계 산업에서의 살충제 사용은 생산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즉 좁은 간격의 계단식 밀집 계사형의 축사구조가 보편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점차 살충제의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었고, 살충제의 종류 또한 늘어났을 것입니다. 양계산업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국내의 계단식 밀집 계사형 산란계농장의 경우 오래전부터 각 종의 살충제를 거의 모든 농장에서 사용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오랜 시일이 지난 2017년 지금에 와서야 사회적으로 소비자를 불안케 하는 이슈가 되었을까요? 축산물의 생산이나 생산단계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정부의 업무부처나 관련 전문가들이 좀 더 주의 깊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면 보다 일찍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공유하여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갈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장들에서는 특히,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창궐하는 닭 이에 의한 경제적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도 비교적 편리한 방법인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 농장에서 오랜 시일 동일한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내성을 갖는 이가 생겼을 것이고, 그러다보니 좀 더 효력이 좋다는 새로운 다른 약품(아직 사용이 허락되지 않은)을 찾아 사용하거나, 허락된 약이라도 권장되는 사용량보다 많은 양을 뿌렸을 것입니다. 또한, 살충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산란계 사육의 특성상, 사육 중인 닭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계사를 일시적으로 비울 수 없어서, 편리성을 생각하여 사육 중인 닭에 직접 살충제 희석액을 살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의 내용들이 이번 사태의 실체이고, 실시된 살충제 잔류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모든 농가들은 위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것입니다. 일부의 소비자들은 이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사육하는 닭에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법(예: 완전 방사형 자연사육)으로 계란을 생산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그러한 방법은 계란의 가격은 차지하고, 국내에서 소요되는 계란생산을 다 감당하기에는 전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기에 현재의 수준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찾아야만 할 것 입니다. '현재의 수준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목적과 계란을 포함하여 식용을 대상으로 하는 가축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수립하여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봅니다.

### 우선, 단기적 방안들입니다.

첫째, 국내 현장에서의 동물용 살충제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에서의 불법 유입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축을 사육하시는 축주들께서 살충제를 사용하면서 약품을 제조한 회사에서 제시한 용량 및 방법 외에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검출되었던 한 약제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에서 개인적으로 수입하여 국내 농가들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물용 살충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리가 부실할 경우 향후에 이번과 같은 문제가 일부의 농장에서라도 반복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재 산란계에 사용이 허가된 살충제들의 적절한 사용법을 축주분들이 알기 쉽게 자료로 만들어 보급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해드려야 합니다.

넷째, 현재 사용이 허가된 살충제들에 대한 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약제사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각 농가에 맞는 약제사용 프로그램 개발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관계로 현장을 잘 아는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 인력들이 도와야 합니다. 다섯째, 양계협회나 혹은 정부의 업무 관련 부처 주관으로 닭 사육과 계란생산단계의 실무 내용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문회의나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실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회의를 자주 해야 할 것입니다. 소나 돼지 등 다른 축종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자문회의 기구가 구성되어 활동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중·장기적 방안입니다.

첫째, 살충제 사용 저감화 즉, 닭 이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계사 및 케이지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한 농장 내의 계단식 밀집 계사라

하더라도 계사의 위치와 구조에 따라 이 감염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는 것이 현장의 증언입니다.

둘째, 전문 방역업체 육성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계사 내에 살충제를 분무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약품을 살포하는 분들이 입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살충제뿐만 아니라 소독제 사용 및 방역기 관리도 상당한 주의와 정확성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위의 약품이나 기계를 사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축사육단계 HACCP 시스템을 점검했으면 합니다. 지난 십여 년 HACCP 시스템이 국내 가축 사육단계에 도입되어 축산물 위생실태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도 위생관련 문제만큼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유지해온 축종별 위해요소 지정이나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다시 분석해 보기를 권고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지금까지 지난 십년은 양적인 발전(HACCP 보급)에 방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발전에도 같은 비중으로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넷째, 가축사육단계의 위생 및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전문 인력의 부족을 생각합니다. 축산식품의 특성상 온전한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각 축종별 가축질병, 백신, 소독제, 구충제, 항생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 외에 현장의 실무 또한 잘 파악해야만 합니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은 두 기관으로 이원화되어 효율이 떨어지고, 담당인력의 잦은 교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장부터 도축장까지의 현장을 자주 찾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축생산단계에서의 '방역'과 '위생'은 그 내용이나 특수성으로 보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